

◆ 會員社 勤靜 ◆

金星計電(株), 몰드변압기 캐나다 파워테크 연구소 시험합격

金星計電(株)(代表 : 白重英)가 국산화에 성공한 「대형몰드변압기」가 세계적인 변압기 시험기관인 캐나다 파워테크연구소의 개발시험에 합격했다.

金星計電은 자체개발한 38KV 5천KV A급의 대용량 정류기용 몰드변압기가 캐나다 파워테크 연구소의 개발시험에 합격,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金星計電은 파워테크연구소가 ANSI(미국표준협회)와 IEEE(미국전기전자기술협회) 시험규격에 따라 실시한 몰드변압기에 대한 개발시험에서 단락강도 및 내열성능 무부하전류 효율성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金星計電의 이번 개발시험합격은 지난해 38KV 3천KVA 용량 몰드변압기의 개발시험합격에 이어 두번째이다.

同社는 지난 89년 몰드변압기의 국산화에 성공, 국내 지하철용 변압기도 공급하고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운수청에 지하철용 대용량 몰드변압기 2백만달러어치를 공급했었다.

몰드변압기란 공급받은 전력이 지하철이나 공장 가정등에 일정한 전압으로 흐를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

極東電線工業(株) ISO · 9001 認證 획득

極東電線工業(株)(代表 : 李滄鍾)이 지난 12일 DNV(노르웨이 선급협회)로 부터 선박용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ISO 9001 인증서를 수여받고 본격적인 품질보증체제 구축에 나섰다.

극동전선은 이로써 忠北진천공장을 포함한 서울사무소등의 설계 · 생산 · 판매 · 서비스는 물론 경영 전부문까지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규격을 받게된 동시에 자회사 DNV-QA가 있는 英國상무성에 정식적인 상표등록이 된다.

지난 2월 고객만족주의를 표방하고 ISO 9001 품질보증시스템인증 획득을 추진, 본격 회사 표준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가 1년 6개월만에 쾌거를 거둔 同社는 특히 선박용 전선부문은 기술·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극동전선은 이와함께 최근들어 선박의 안정성을 증시하는 추세에 맞춰 난연·무독·저연·내화케이블 및 석유시추선등에 사용되는 특수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ISO 9001 인증이 세계 시장 거점확보에 청신호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DNV는 노르웨이에 본부를 두고 해양설비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평가·검증 및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유수의 선박협회로 영국 DNV-QA를 비롯 11개국에 자회사인 ISO 9001 인증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三星航空産業(株) 대용량 인버터 國産化 추진

三星航空産業(株)(代表 : 李大遠)가 대용량 인버터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三星航空은 최근 商工部로부터 대용량 인버터 도입을 위한 정부신고와 수입추천품목 승인등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 대용량 인버터 개발에 나섰다.

일본 야스카와社 기술제휴로 추진케 되는 인버터국산화는 55KW~3백KW의 대용량으로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20%, '95년 40% 그리고 '96년에는 70% 이상 국산화율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三星航空의 대용량 인버터 개발로 그동안 주로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이들 제품의 국내 기술력 제고가 크게 기대된다.

한편 三星航空은 지난 90년부터 인버터의 국산화 노력에 힘입어 올해 매출목표가 1백10억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株) 有裕, 세라믹 事業 본격화

릴레이 생산업체인 (株)有裕(代表 : 鄭淳煥)가 럭키금속으로부터 세라믹 패키징 설비를 인수하고 세라믹 사업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有裕는 세라믹 사업 참여를 위해 올초부터 럭키금속과 30억원 규모의 세라믹 패키징용 MLP(멀티레이어패키징) 설비 인수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有裕는 이번달 말까지 럭키금속의 MLP 설비를 독산동 공장으로 완전 이전하는 한편 지난해 구성한 세라믹 연구팀을 확대 개편, 세라믹 패키징 팀과 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고주파 부품팀으로 2원화해 세라믹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세라믹 패키징 팀은 당분간 수정진동자 등 일반전자부품의 패키징 사업에 주력한 후 점차 반도체 패키징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고주파 부품팀은 전자파장해(EMI)칩 필터, 표면탄성파(SAW)필터 및 각종 이동통신용 핵심부품의 개발양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有裕는 향후 3년간 매년 10억~20억원을 세라믹 분야에 투자해 기초기술의 습득에 집중 노력하고 이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有裕는 세라믹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존 독산동 공장의 릴레이 생산라인을 김포 공장으로 증축, 이전하고 독산동 공장은 세라믹 사업 전용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株) 코리아스엔, 예열점등방식 電子스타터 國産化

(株)코리아스엔(代表 : 鄭榮春)은 美國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독자적인 예열점등방식의 전자스타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89년 전자스타터를 개발 뉴욕국제발명전에서 금상을 획득한 바 있는 동사는 제품의 미비점을 다시 보완, 이번에 예열점등식 전자 스타터를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다.

약 3억원을 투자해 2년여의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이 제품은 국내조명기술의 낙후와 조명특성이 불균일한 가운데서도 이런 난관을 극복해 제작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식 안정기가 재래식 전기 마그네트방식 안정기 보다 장점도 많지만 유해전자파 발생을 피할 수 없고 전기물리적으로 약해 낙뢰와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하며 값이 비싸고 생산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부품수의 증가로 구조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래식 안정기에 사용될 전자스타터의 개발을 고집해왔다.

예열점등식 전자스타터는 전원 투입후 자동적으로 일정시간 필라멘트를 충분히 예열하고 다량의 열 전자 방출후 일발점등하기 때문에 형광램프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한편 추운 날씨와 같은 주위 온도에 적응 폭이 넓으며 종래의 글로우스타터가 4천~5천번 점등수명을 갖는 반면 1백만번 이상 오랜 점등특성을 갖고 경년변화가 거의 없으며 형광램프 수명을 20% 이상 연장시켜 준다. 특히 일반 글로우스타터로 점등하는 경우 1회 점등시 3시간 정도 램프의 수명단축을 가져오고 3천회 이상부터 흑화현상이 일어나며 연속시험의 경우 20만회 정도에서의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번 개발된 3세대 스타터는 50만회 이상 흑화현상이 전혀 없고 연속 1백만회 이상 필라멘트 손상이 없이 점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점등시 예열후 소프트스타터가 이뤄지므로 전자노이즈가 극히 적고 일발점등으로 소비전력 절감은 물론 시력까지 보호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金星電線(株), 전원용 커넥터 소재품 UL.CSA 認證 獲得

金星電線(株)(代表 : 權炆久)는 최근 전원용 커넥터에 대해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 표준규격을 잇따라 획득했다.

금성전선은 자체 개발한 전원용 커넥터(모즈) 전 제품에 대해 지난 6월 캐나다의 CSA 규격을 인증받는데 이어 8월 중순 미국의 UL인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금성전선은 이번 UL·CSA 규격 획득으로 내수시장 확보는 물론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금성전선이 UL·CSA를 획득한 전원용 커넥터 제품은 일반적인 고전류 정격 특성을 갖춘 외에도 원터치록(ON TOUCH LOCK)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작업성이 뛰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성전선은 올해말까지 본격적인 국내 시판에 나서는 한편 홍콩·동남아등지로의 수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